

투데이 칼럼

스포츠(Sports)란 무엇인가?

최근, 전 세계인의 시선을 끌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하며 성대한 막을 내렸다. 경험해디시피 스포츠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심과성을 갖고 있다. TV, 특히 9시 뉴스 시간에 중요도에 따라 나열·보도되지만 ‘스포츠 뉴스’는 반드시 정구 뉴스와 별개로 일정 시간 구성·광영하는 것, 매년 전국 초·중·고 농항 체육대회를 하는 것 등이 이를 방증한다면 대단한 착각인가? 한껏 부풀린 과언일까?

#어원(語源)으로 본 스포츠의 진정한 개념  
스포츠(Sports)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본질적으로 ‘휴식과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라틴어 기원 (portare & deportare): portare(운반하다, 옮기다)에 ‘분리, 제외’를 뜻하는 접두사 de-가 결합하여 deportare(옮김·일상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다, 분리한다)라는 단어가 생성되었다.  
“영어로의 변천(disport → sport): deportare는 이후 영어 disport(즐거게 놀다, 장난치게 즐기다)로 발전하였



이 윤 희  
(주)파시코 대표이사

‘휴식과 즐거움’, 스포츠라는 단어의 본질

역사 속 발생 배경은 생존 경쟁과 밀접해

현대 스포츠, 우정과 연대 등 지향하는 장치로

고, 앞의 di-가 탈락하면서 지금의 sport가 되었다.

#스포츠의 본질  
단어의 유래가 밝혀주듯, 스포츠는 본래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흥겹게 노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바쁨의 인식과 편안함을 얻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스포츠의 원래 본질의 가치이다.

#스포츠의 역사적 기원은 생존과 투쟁의 산물이다

어원적 의미와는 달리, 역사 속 스포츠의 발생 배경은 현실의 혹독한 생존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생존과 영토 확장의 수단으로서의 스포츠는 지략 확보, 영토 확장 및 도시국가들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진 다양한 전투 기술과 무장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전쟁과 전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림픽 기가피라라도 적인 비무장으로, 살상 장비인 무기 없이 전투 나

체도 경기를 치렀다.

당연히 남자들만의 경기로 레슬링, 권투, 단거리, 전차(승마) 등 주로 격투기로 구성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와 유물에서 보듯이 신(神)을 추앙하는 제전(祭典)이자, 치열한 전쟁과 생존 경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영웅들을 추모하는 장엄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역설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아곤(agón, 고통)’이라 불렀다. 이 흔적은 고대 아테네 희곡을 거쳐 현대 영어의 agony(고통, 번민) 및 agonize(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단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단편 과정과 경기에서는 반드시 심신의 고동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극대화하여 반대급부로 기쁨과 환희가 찾아온다.

#현대 스포츠로의 변모 및 발전  
치열한 전쟁과 생존 투쟁에서 출발한 스포츠는 19세기 말 근대에 이르러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커다란 전혁적인 틀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스포츠는 삶의 협력 증진, 우정과 연대, 평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였다.

사설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사람의 노동력 없이 화물차에 화물이 실리고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국내 고속도로에서 화물을 실은 자율주행 화물차가 상업용 운행을 시작했다. 자율주행 스위치를 켜고, “자율주행으로 가겠습니다.”고 한다. 핸들에서 손을 떼자 25톤 대형 트럭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차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달린다.

돌발 위험도 알아서 감지해 낸다. 지난 1일부터 실제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자율주행 화물차이다. 전북 군산항을 출발해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116km 거리를 주 3회 다닌다.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건 곳곳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들이다. 자율주행이 더 고도화되면 운전

석엔 더 이상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보조석에만 사람이 탑승하게 된다.

내후년쯤엔 보조석에도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된다. 24시간 운행으로 배송 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가 줄어 전체 비용도 감소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그리고 “졸음운전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는 차량이 그런 위험 상황 없이 꼭 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정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것도 있다.”고 한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했던 화물상하차 과정에도 무인 로봇이 투입되는 등 화물 운송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

다만 해킹 등 기술적 오류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축소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리문화전당 등서 열린 ‘생태의 집-한옥’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사비나미술관이 지난 2일까지 전당 전시장 2층에서 ‘생태의 집-한옥’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는 ‘K-뮤지엄 지역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했다.

전시 ‘생태의 집-한옥’은 한옥을 단순한 건물 건축물을 넘어, 자연과 인간·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형성해 온 생태적 삶의 공간으로 재조명했다.

전시는 한옥의 구조, 재료, 빛, 바람, 마당, 처마, 창호 등 전통 건축 요소에 현대 미술가 10인의 작품을 더해 한옥의 생태적 가치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 자연을 담은 집, 한옥 △ 관계의 집, 한옥 △ 미래의 집, 한옥 등 세 가지 색션으

로 구성됐다. 김선두, 안윤모, 이종근 등 5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자연’을 담은 집, 한옥은 한옥이 지난 뛰어난 생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한옥의 특징들을 조명했다.

김도영, 남경민, 하루K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한 ‘관계의 집, 한옥’은 한옥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현대 사회에서 한옥의 공간적 지혜가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전시했다.

노치옥, 이음 등 2명의 작가가 참여한 ‘미래의 집, 한옥’에서는 한옥이 지난 생태적 지혜를 바탕으로 AI,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주거 형태를 상상해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기고문

노인의 삶에 발을 들여놓은 문학적 복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는 주로 따뜻한 식사, 안전한 주거, 그리고 아프지 않게 치료를 받는 의료서비스 같은 물질적 신체적 차원에 머무르곤 한다. 물론 이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인간은 밥만으로 살 수없는 존재이기에 노년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 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무언가 필요하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 지역본부에서 2026년 사범 사업으로 이야기 듣기 기록 작가단을 출범 운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작가와 수혜자 모두에게 노후의 허전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품격 있는 문학작복지라고 생각한다.

작가 입장에서 보면 은퇴 후에 찾아

오는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생의 즐거움 창고이자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노년기는 상실의 계절이다. 직장에서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사별, 서서히 약해지는 신체는 노인들을 사회적 고립과 우울 감으로 빠질 수 있는 시기에 인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야기 기록 작가단의 활동은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된다.

늘어가는 것은 오래된 성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성화(聖畵)들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과정이다.

국가와 사회가 노인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단계들 그들이 문학작 고독과 갈증에 귀를 기울



이 장 태  
원광 호도마을 시니어클럽 인생이야기 작가

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복지 국가가 완성될 것이다

어르신들의 묻혀있던 기억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자 문학이다. 이 기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삶을 긍정하고 위로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인생 이야기기록 작가단의 집필이

거창한 문학작품이 아니더라도 수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용하고 정리한 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과정은 나만 혼자 가 아니라 라는 깊은 위로와 사회적 연결망을 선물한다. 노년의 삶, 이별, 자연의 섭리를 다룬 글쓰기는 작품 속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노인들을 위한 문학작 복지 효과는 고립된 노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훌륭한 통로가 될 것이다.

하루 중 가장 붉고 아름다운 석양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제는 노인들의 문학작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인생 이야기 기록 작가단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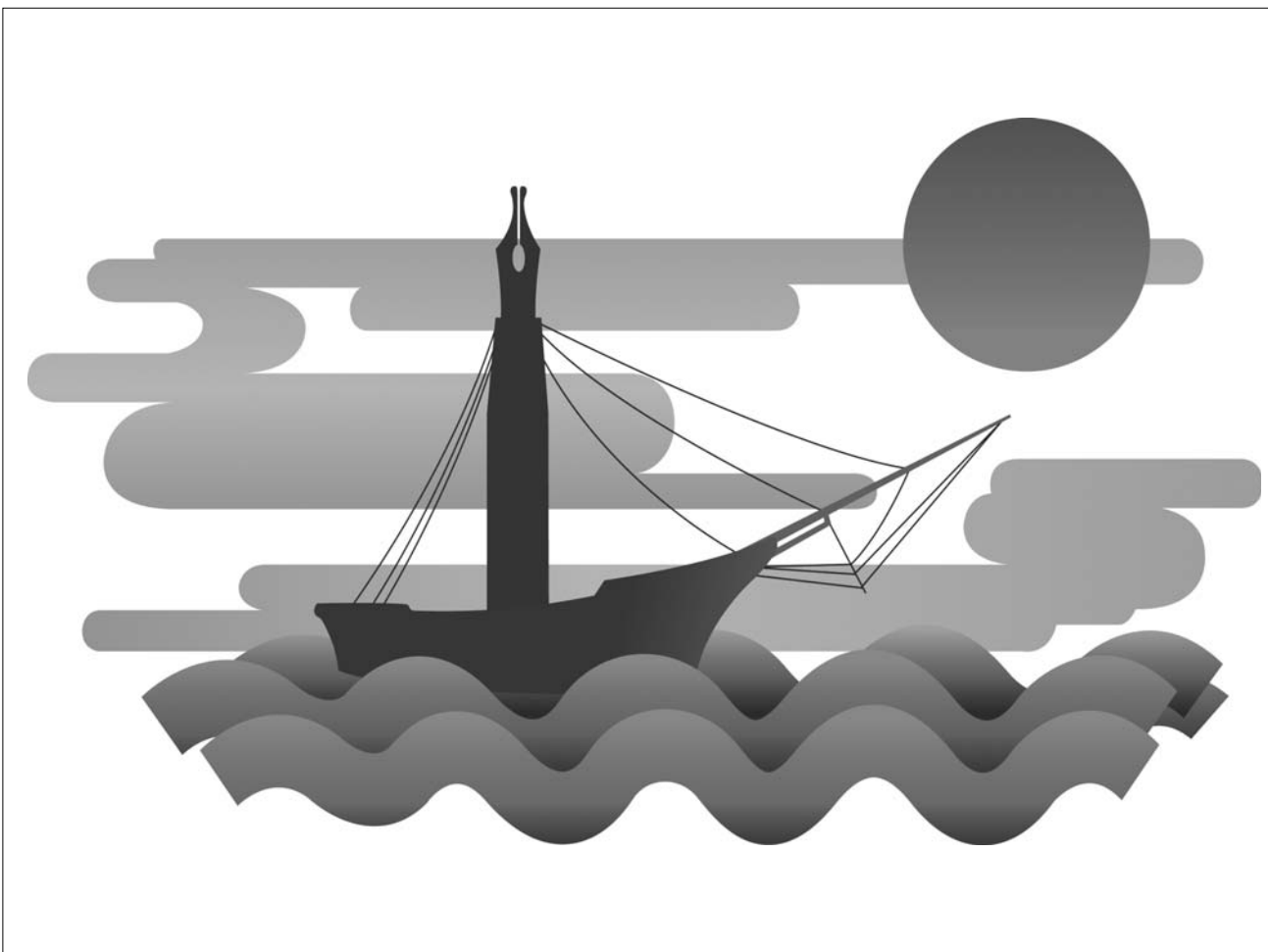


▶ 비로잡습니다

본보 8월 5일자 13면에 게재된 투데이 칼럼 ‘조합원의 행복, 농업의 미래’의 필진은 ‘박건후 전 전주농협 조합원 지원실장’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박건후 전 전주농협 조합원 지원실장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